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돕는다

전주시, 9월 말까지 각 동 주민센터서 난방연료 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연탄·등유 구입 가능한 쿠폰·카드 배부 사업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과 등유를 지원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과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내 저소득층에 난방연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에너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연탄과 등유 구입이 가능한 쿠폰과 카드를 배부하는 사업으로, 시는 이달 말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난방연료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우선, 시는 난방용 연탄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 가정에 약 320장 정도의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을 지급. 추운 겨울 연탄 한 장이 아쉬운 에너지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고유가로 인해 난방비 부담이 가중됐던 기름보일러 사용가구에는 난방연료 지원사업을 통해 등유 300리터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31만원의 등유 구입카드가 지원돼 에너지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종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



흥정소리에 씨꿀벅벅 최근 추석을 맞아 전주 남부시장 맞은편 천변을 따라 도깨비시장이 열렸다. 이른 아침 제수용품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도깨비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도깨비시장은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전주남부시장 매곡교 인근 천변둔치에 길게 장이 선다.

번 난방연료 지원사업으로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 이전에 난방연료를 비축할 수 있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사정이 넘치는 겨울나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시름

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난방연료 지원 수급자는 연탄쿠폰과 등유 구입카드의 이용금액 및 유효기간 내에서 난방연료를 분할 구입할 수 있다.

단 연탄은 2017년 4월까지, 등유는 2017년 2월까지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쿠폰 및 카드는 사용금액이 소멸돼 사용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천 자전거길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 선정

전미동 만경강 합류점에서 색장동 안적교까지 총 길이 17.3km 구간

한옥마을 인접·남부시장 야시장·청년몰 볼거리·먹거리 즐길 수 있어

전주천 자전거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길 중 한곳으로 선정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選)'에 전미동 만경강 합류점에서 서부터 색장동 안적교까지 이르는 총 길이 17.3km의 전주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

이번 아름다운 자전거길 선정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천한 경관이 아름답고, 주변 관광자원 유적지, 휴양

지 등과 연계성이 좋은 자전거길 216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전주천 자전거길은 전주의 생태축인 전주천을 돌며 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의 유유자적 풍류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서, 자전거를 이용해 왕복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

특히 이곳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인 한옥마을과 인접한데다 남부시장 야시장 및 청년몰에서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전주자연생태박물관에서의 생태

체험과 천주교 성인 치명자산 돌레길 탐방 등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도심 속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자전거코스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주차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일상의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고 되살아난 자연환경과 잘 정비된 산책로가 매력인 전주천 자전거길에서 맛과 멋, 자연의 삼위일체를 느끼며 가을날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 명절스트레스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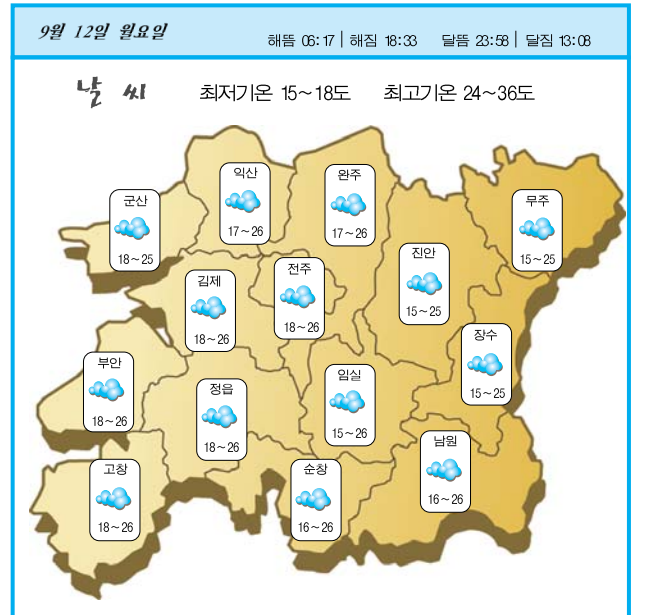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명절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의 62%는 명절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주된 이유는 가족과 친척들의 잔소리(49%) 때문이다. '가족들과의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서'(39%)라는 답변도 나왔다.

응답자의 54%의 취업준비생들은 이번 추석 연휴 때 귀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휴 동안 '구직활동'(29%), 공부(20%), '아르바이트'(5%) 등 취업준비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휴식을 취하겠다는 인원(42%)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인크루트 취업생 회원 3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3일 진행됐다.

/뉴시스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

보훈단체 한 곳에서 통합 운영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각자에 분산된 보훈단체들이 통합 운영된다. 전주시는 관내 9개 보훈단체를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완산구 현무길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해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전주시보훈회관 건물은 연면적 352㎡ 규모(지상 2층)로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보훈단체만 입주해 사용하고 있다.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지회 등 5개 보훈단체들은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시는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통해 9개 보훈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회의를 상호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영숙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각자에 산재해 있는 보훈단체들을 새로운 보훈회관으로 통합·운영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훈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도교육청, 내년 유치원·초교 등 6곳 신설

전주 숲꿈유치원·봉곡초 등

내년 전북지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총 6개 학교가 새롭게 문을 연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에 유치원(3개)과 초등학교(3개) 등 모두 6개 학교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유치원은 전주 숲꿈유치원(단설)과 전주 하가초 병설유치원, 익산 배산초 병설유치원이다.

익산 배산초 병설유치원이다.

초등학교는 전주 봉곡초와 전주 하가초, 익산 배산초다.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혁신도시)에 개교하는 숲꿈 유치원은 12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이며, 하가초 병설 유치원은 덕진동에 3학급, 배산초 병설은 모현동에 1학급 규모로 각각 문을 연다.

봉곡초(가칭)는 24학급으로 개교하며, 하가초(가칭)와 배산초는 36학급 규모로 각각 개교한다.

/고민형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